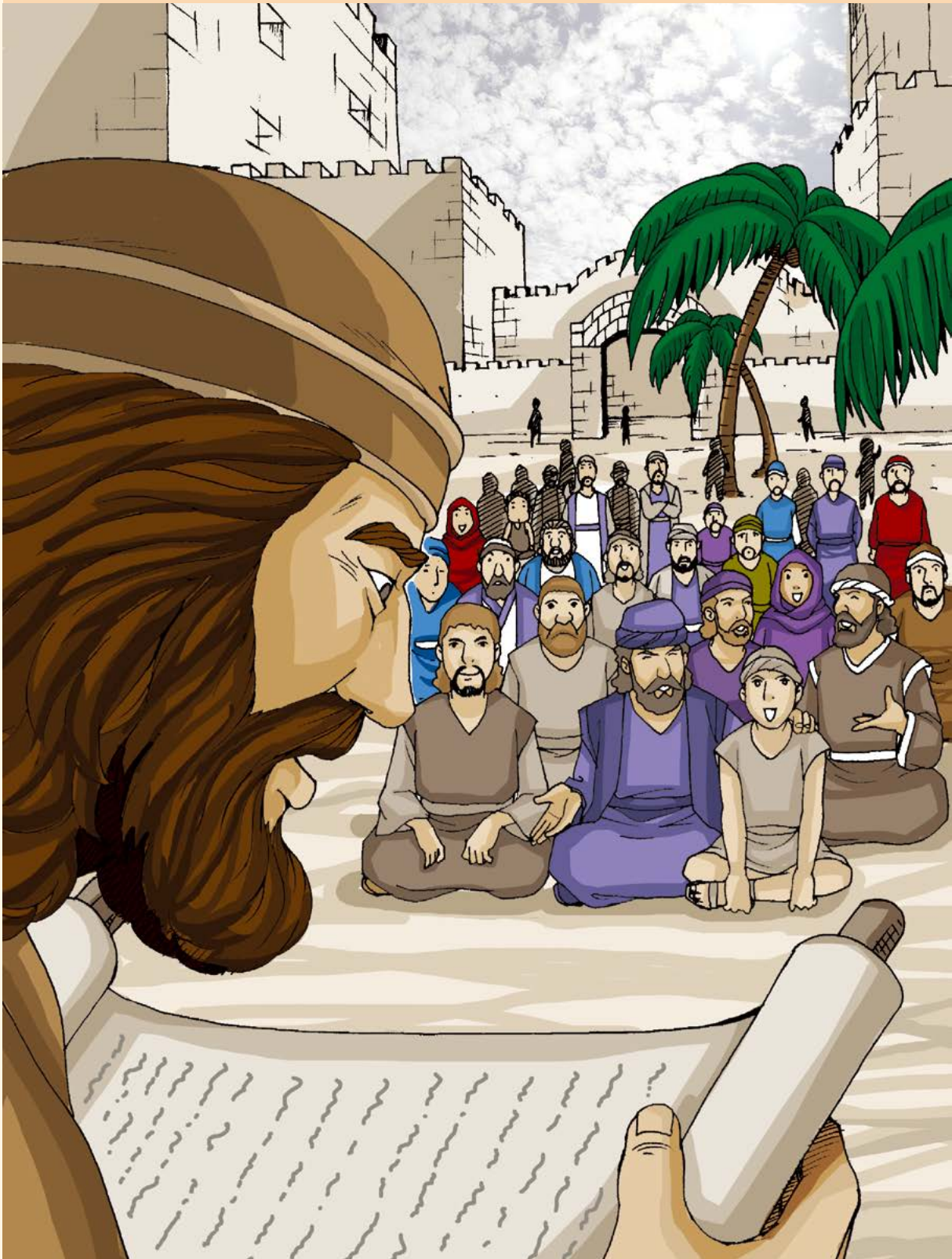


22 율법을 가르친 에스라

느헤미야 8장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백성에게 율법책을 읽어 주었고, 그들은 모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건축한 후 7월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문 앞의 넓은 광장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의 ¹⁾환관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이스라엘 땅으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백성에게 율법책을 읽어 주었고,

그들은 모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박 등 많은 레위 사람은 백성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느헤미아가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¹⁾환관: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

성
경
암
송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10)

모든 백성은 느헤미아의 말을 따라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서로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율법의 말씀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에스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셨던 초막절이 7월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읍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알려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백성은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그 안에서 지내며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부터 초막절을 이처럼 크게 지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이 명절 7일 동안 매일 율법책을 낭독하였으며 8일째 되는 날에는 말씀대로 모두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백성이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말씀을 찾거나 그림을 보며 설명해 보세요.



(느헤미야 8:3)



(느헤미야 8:9)



(느헤미야 8:6)

■■■■ 부터 ■■■■ 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였어요.



백성의 기쁨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했던 두 가지 이유를 느헤미야 8:8~12절의 말씀을 읽고 써 보세요.

.....

.....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입니다.

여호와와 은 정직하여 마음을 하고 (시편 19:8)

나의 하나님이어 내가 주의 뜻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 40:8)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과 기쁨



다음 보기를 보며 여러분이 느끼기에 정말 즐겁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적어 보세요.

.....

.....

2) 내가 전도한 친구가 구원받았을 때

4) 수학경시대회에서 100점 맞았을 때

8) 만화책을 읽을 때

9) 성경 말씀을 읽을 때

7) 나중에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을 생각할 때

5) 내 생일이 되어 생일 파티를 할 때

10)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생각을 할 때

1) 월암송을 외웠을 때

6) 구구단을 다 외웠을 때

3) 내가 구원받았을 때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다음 예화를 보고 물음에 대답해 보세요.



무화과 열매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양도 소도 아무것도 없구나!



하지만 나는 정말 기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정말로 좋은
천국까지 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전도를 해도 듣지 않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든다!



하지만 나는 정말 기쁘고 즐겁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히박국이나 예레미아가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시편 16편이나 23편을 읽고 우리가 기쁘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세요.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4:7)



알아볼까요



플레처의 자기 반성

존 플레처는 9개조의 죄우명을 만들어 이것을 거울삼아 자기 속사람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스스로를 깊이 훈계했다.

1. 내 영혼의 눈이 깨어 있는가? 오늘 아침 눈을 뜬 후에 그 생각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는가?
2. 나는 기도를 할 때마다 한층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약한 정신에 붙들린 것이 아닌가?
3. 나의 신앙은 방심 때문에 약해졌는가? 아니면 싸움 속에서 강해졌는가?
4. 나는 일체의 불친절한 말과 생각을 이겨냈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높일 때 기뻐하지는 않았는가?
5. 나는 빛과 힘과 기회가 허락하는 한 귀한 시간을 가장 잘 사용했는가?
6. 나는 하나님을 위해 절약해야 할 경우 절약했는가? 자신을 기쁘게 할 만한 무언가를 절약하지는 않았는가?
7. 나는 말이 많으면 죄가 없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나의 혀를 잘 지배했는가?
8. 나는 몇 번 나를 이겼는가?
9. 나의 생활과 말이 복음에 합당하며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고 있는가?

부모님난

선생님난



알아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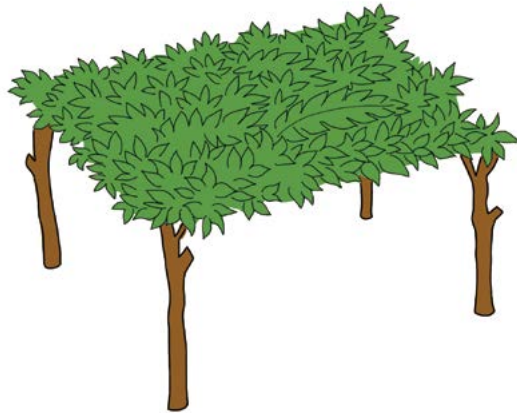


초막절

초막절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의 광야생활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이때에는 광야에 나가 큰 나뭇가지나 풀들을 엮어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살며 지켰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초막절은 모든 곡식을 추수하여 저장한 다음에 지킨 절기였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때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낼 때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또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모님란

선생님란

Blank rounded rectangular box for writing a message to parents.

Blank rounded rectangular box for writing a message to the teacher.